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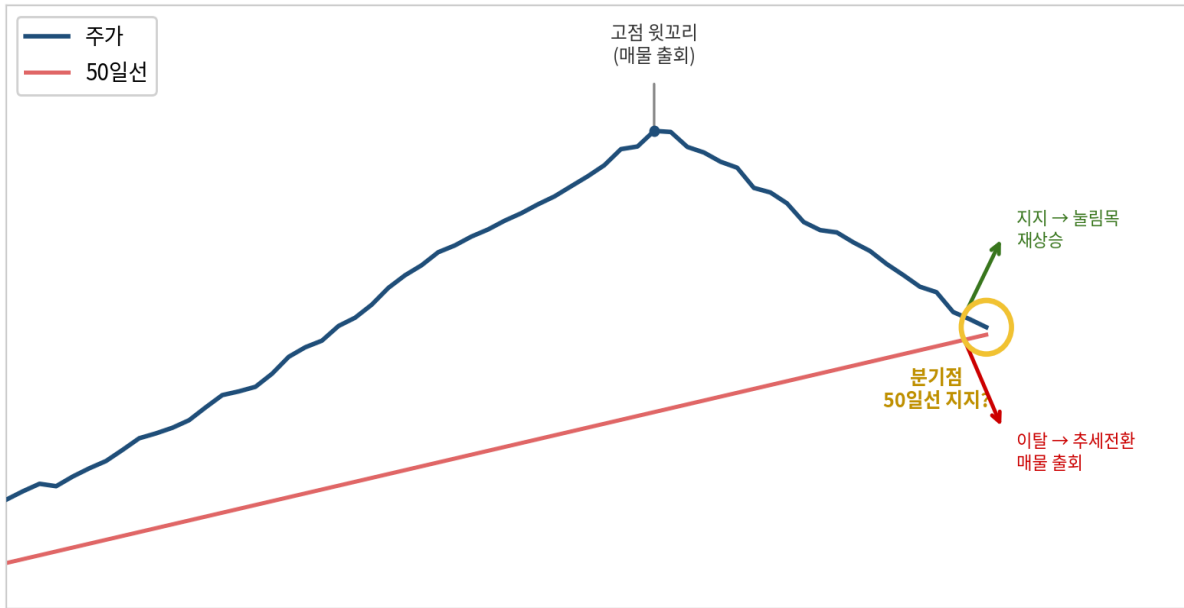
50일선 지지 여부 체크

급등 후 첫 조정에서 추세의 생사를 가르는 분기점

1. 50일선이 뜻하는 것

최근 50거래일 종가의 평균을 이은 선. 약 두 달 반 동안 이 종목을 산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에 가깝다.

- 주가가 50일선 위 → 최근 두 달 반 매수자 대부분이 수익 구간
- 주가가 50일선 아래 → 그 매수자들이 손실로 전환
- → 중기 추세의 기준선으로 가장 널리 본다



급등 후 첫 조정이 50일선 부근까지 내려온 자리 = 분기점

2. 분기점에서 갈리는 두 갈래

지지받고 다시 상승

상승 추세 속 건강한 눌림목(조정). 추세가 살아 있어 이전 매수세가 평균 단가 부근에서 다시 받쳐준 것 → 재상승의 발판.

깨고 내려감 (이탈)

단순 조정이 아닌 추세 전환의 첫 신호일 수 있음. 중기 매수자가 손실 전환 → 매물 출회 → 다음 지지선까지 밀릴 위험.

3. 왜 "급등 후 첫 조정"에서 더 중요한가

이미 많이 오른 종목의 첫 눌림에서 50일선을 지켜주느냐가 추세가 이어질지, 고점을 찍고 꺾일지를 가능하는 1차 관문이다. 특히 직전에 고점 윗꼬리 긴 음봉(고점에서 매물 출회)이 나온 직후라면, "위에서 팔린 물량을 50일선에서 받아내는가"를 확인하려는 의도다.

핵심 한 줄

50일선 = 중기 매수자 평균 단가. 급등 후 첫 조정이 이 선에 닿으면, **지지=눌림목** / **이탈=추세전환**으로 갈린다. 펀더멘털 호재와 별개로 반드시 따로 체크.

※ 적용 메모 — 50일선 지지 여부는 펀더멘털과 별개의 기술적 분기점이다. 단일 근거 거래 금지 원칙대로, 50일선 지지 + (해당 종목의) 넥라인 이탈 여부 등 차트·수급을 교차 확인한 뒤 진입·비중을 판단한다. 본 자료는 개념 정리용이며 매매 권유가 아니다.